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영농철 토요일 근무 확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월부터 11월까지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토요일 근무를 실시한다. 또 4월부터 6월까지는 5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오전 8시부터 조기 운영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선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5개 권역에서 운영되며 94종 1688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 주요 작물에 적합한 농기계를 배치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돕고 있으며, 농기계화 촉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임대한 농기계는 사용 후 반납 시 정기 점검을 거쳐 노후 부품을 수리·교체하며 농업인이 최상의 상태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읍천 산책로 '펫티켓' 지도 단속 강화

정읍시가 봄철 나들이 시즌을 맞아 정읍천 산책로에서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 홍보와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건설과 하천관리팀과 축산과 동물보호팀이 협력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읍천변 산책로에서 동물보호법을 적극 안내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정읍천 산책로에서의 동물보호법 미준수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홍보와 안내를 진행,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맹견 입마개 미착용 등의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는 산책로 곳곳에서 '펫티켓'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근거 없는 음해 즉각 중단하라"

권익현 부안군수, 자광홀딩스 특혜 의혹 정면 반박… 강경 조치 예고

부안군은 최근 제기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부안군은 최근 제기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군은 특정 세력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아들이 ㈜자광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의 아들은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했으며 2023년 11월 자진 퇴사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권익현 군수는 "특혜 채용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날조"라며 "근거 없는 발언으로 특정 기업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아들이 변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 변산관광휴양콘도 사업과 연결시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안군청 관광과가 해당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변산면 근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부안군은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4월 전라북도, 부안군, ㈜자광홀딩스 간 3자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2년 12월 토지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2023년 12월 업체 측이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매매대금 납부 연장을 요청했고 부안군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2024년 12월까지 1차 연장을 승인했으며 추가 연장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조건부 승인했다.

특히 부안군은 "계약금 26억원과 계약이행 보증금 100억 원을 확보해 만일 업체가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총 126억원을 군 예산으로 귀속시키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부안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 것인데도 특혜 운운하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일부에서 제기된 토지 매각 및 공무원 시험 부정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안군은 "모든 토지 매각은 교차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 가격에 진행된다"며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특혜 매각' 운운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허위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군수 아들의 공무원 시험 합격이 부정행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오늘날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황당한 억측"이라며 "사실 확인도 없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부안군은 "객관적 사실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허위 주장으로 군정을 흔들려는 시도는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부안군과 군민을 모독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은 부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유지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실현

정읍시, '2025 시민과의 대화' 마무리… 23개 읍 · 면 · 동 방문

정읍시가 9일간 23개 읍·면·동을 방문하며 진행한 '2025 시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4일 영원면서 시작 18일 내장상동까지 이어진 이번 행사는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학수 시장은 총 1800여 명의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챙겼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도로 확·포장 및 농로 포장, 농배수로 정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개설, 복지택시 운행 개선, 노후 다리 보수,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143건이 접수됐다.

이 시장은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를 지시했으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혼란스러운 정국과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편에 서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대화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처리 계획을 건의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봄축제 구(9)경 와보랑께 지원사업 추진

고창군이 본격적인 봄 축제 시즌을 맞아 '여행경비 지원사업(고창 봄축제 구경 와보랑께)'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여행경비 지원은 벚꽃축제가 시작되는 오는 4월4일부터 5월8일까지이고 총 60팀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행경비 지원조건은 △관외(고창 외) 지역 거주자 △사전신청 △숙박 1박 이상 △고창 9경 1개소 이상 방문 △벚꽃 또는 청보리밭 축제장 방문 △식당·카페·특산품 중 1개 이상 방문 △SNS 게시물 업로드 △영수증 총합 20만원 이상(숙박 금액 50%만 인정)이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선착순으로 20만원 이상 소비 시 10만원, 30만원 이상 소비 시 15만원, 40만원 이상 소비 시 20만원을 고창사랑카드로 환급해준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동래구 신청사 개청식 축하 방문

자매도시 부산 동래구와 교류 확대 · 상호 협력 강화 약속

고창군이 19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양 도시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자매결연도시인 부산 동래구의 개청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고창군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행사들이 진행됐다.

공식 기념행사를 앞두고 열린 자매도시 환영오찬에서는 부산 동래구의 자매도시인 고창군 옥천군 관계자들이 만나 향후 교류 사업 활성화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인 대외협력 강화에 대한 뜻을 모았다.

이후 진행된 개청식에서는 신청사 광장에서 진행된 기념식수 제막식에 참석하고, 고창군의 축하영상이 상영되어 자리를 더욱 빛냈다. 축하영상에서는 고창군의 진심 어린 메시지와 함께 두 도시의 우정과 앞으로의 협력 의지를 담아내며, 참석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특히, 양 도시의 직원들은 개청식을 기념해 상호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하며, 양 도시간 교류와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개청식을 계기로 고창군과 동래구가 더욱 가까워지고, 상호 발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과 부산 동래구는 지난 1997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어르신 목욕비' 지원

부안군은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통해 작은 목욕탕이 없는 읍·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5만원을 지원하여 건강과 위생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르신들이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를 통해 협약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안군은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을 포함해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을 함께 소개했다. 먼저 ESG 환경사업인 '아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을 통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지구 온도 1℃를 지키는데 기여 한다. 이어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부안으로 젊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부안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복지 사업과 환경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